

# 르 꼬르뷔제의 후기 주거건축의 기원과 실제

## Origin and reality of Le Corbusier's late house

남 경 숙\*

Nam, Kyung Sook

---

###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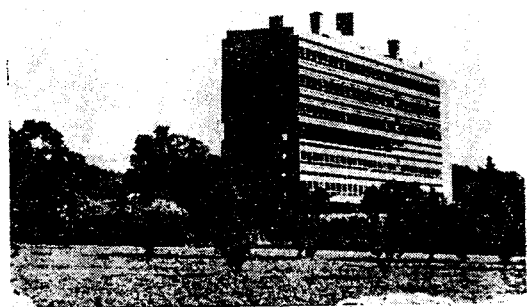
In the beginning of the 1930's, Le Corbusier's new attention turned toward the loc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the prevailing sprit of regionalism and vernaculaire culture. What especially concerns us here is the reference that Le Corbusier makes to vernacular architecture, which we have seen to be the soure of his late houses. During the 1950's, with the Unité d'habitation and the Jaoul houses, Le Corbusier ushered in a new housing trend onto the scene, noteworthy for its use of raw materials and for its opposition to the international style.

---

## I. 서 론

### 1. 연구목적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후기 주거 건축은 마르세이유의 집합주택 (1946-1952, 그림1)과 자울 주택 (1951-1955, 그림2)에 서와 같이 거칠고 자연적인 마감처리로 되어 있다. 이는 조형적 특이성을 가지며, 국제주의 양식에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영국 건축 비평가 헤이네 반함 (Reyner Banham)은 "시각적 이미지, 구조의 명백한 노출 그리고 거친마감 처리의 건축"이라 정의 하였다.



(그림 1) 마르세이유의 집합주택 (L'Unité d'habitation, 1946-1952)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46-1952, Zurich, Gisberger, 1953.

---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건축학박사



(그림 2) 자울 주택 (Jaoul, 1951-1955)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52-1957*, Zurich, Gisberger, 1957.

르 꼬르뷔제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특성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주거건축의 소박한 양식을 대변하고, 현대 주거건축의 한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 건축이 재료의 마감처리와 사용 방법에 의한 "실용주의" 건축인지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하나의 목적이 될 것이다.

케네스 프람톤(Kenneth Frampton)은 1980년, 저서 "현대건축의 비평적 역사"에서, 르 꼬르뷔제의 50년대 작품을 "토속적인 거대화 현상이다."<sup>2)</sup>라 하였다. 건축 비평가 제랄드 모니에( Gérard Monnier)는 1990년에 "르 꼬르뷔제의 30년대 건축은 20년대의 완벽한 기계주의적 모델과는 매우 다르며, 50년대 상상적인 브리탈리즘 현상은 30년대에 그 기원을 두고있다."<sup>3)</sup>고 하였다. 르 꼬르뷔제의 30년대 주거건축은 자연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토속적인 문화를 향한 건축가의 독특한 정열을 나타내었다. 이점에서 우리는 르 꼬르뷔제 후기건축의 기원이 토속성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는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르 꼬르뷔제 후기주거건축의 기원과 실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건축가의 30

년대 작품 분석과 이들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동기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후기 주거건축의 특성을 탐구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1) 30년대 토속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파리의 르 꼬르뷔제 연구소에 소장된 설계 계약서와 설계 일지 등을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한다. 그리고 르 꼬르뷔제가 남긴 7권의 작품집(*L'oeuvre complète*)은 르 꼬르뷔제 연구에 확실한 자료로 개제된 그림은 여기서 발췌하였다. 2) 이어서 30년대 유럽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지역주의 건축, 시대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르 꼬르뷔제의 건축 답사를 통한 제3 세계의 경험을 추적해 봄으로 이를 30년대 토속적인 작품 설계의 동기로 보았다. 3) 마지막으로 르 꼬르뷔제 후기에 해당되는 50년대 주거건축의 특성을 본다. 이는 앞선 작품들이 후기주택의 기원으로서 작용했는지의 연관성을 검증하면서 그 자체의 실상을 보는 단계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르 꼬르뷔제 후기건축의 기원과 실재를 규명한다. 나아가 이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 방법론 이면서 현대 주거건축의 한 양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 II. 르 꼬르뷔제의 후기 주거 건축의 기원

유럽에서는 30년대 초 경제공황의 여파로 건축 분야에서는 공적인 수요가 없었다. 많은 선구자적인 건축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점에서 1930년대는 건축에 있어 질적인 도약을 가져온 시기라 할 수 있으며, 현대 주거 건축의 한 경향을 이끌어갈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르 꼬르뷔제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1. 지역주의 건축

1930년대 초, 르 꼬르뷔제는 주택이 지역

환경과 지역 문화에 잘 적응되도록 '건물이 위치한 장소의 조건'에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었다. 르 꼬르뷔제는 건물을 짓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 재료를 사용하였고, 국제적이고 산업적인 현대화에는 대조가 되나 최상의 건축 방법이라고 평가받던 과거의 전통적 건축 기법을 도입하였다.

건축 역사가이고, 비평가인 제랄드 모니에(Gérard Monnier)에 의하면, 건축에 있어 지역주의는 2가지 성격을 지닌다. 하나는 주위 환경과의 일치를 위하여 지역 건축 양식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개인적인 성향으로 절충주의의 확장을 의미한다. 후자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엘리트 층이나 부르조아 계층에 의해서 선호되었다. 이는 현대적인 빌라에 지역적 건축 양식을 부합시킨 것으로 양과 질과 다양성에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주의는 19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역 문화를 애호하는 비올레 르 둡(Viollet-le-Duc, 1814-1879)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파리의 젊은 건축가들이 예술학교에서 배웠던 아카데미즘에 반대하고, 지역의 토속적인 건축을 발견함에 발전된다. 이들은 이를 재인식하고, 승화시키며,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대 비평가들에 의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지역주의자"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되는데 이는 지역건축에 현대화된 건축과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자는 기후를 고려하고, 지역 고유의 재료를 이용하는 2가지 원리를 중요시 여기며, 토속적인 건축을 참조한다. 그리고, 주택의 평면은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사용상의 적합함을 추구함이 아니라, 형태적 모델도 중요시 여김을 나타낸다. 즉, 20년대의 주거 건축은 큰 방이나 차고들을 두는 미국 양식을 모방하게 된다.

이 지역주의는 제 1, 2차 세계대전 후, 지역 전통에 뿌리를 두고 현대화된 사고를 표현하려는 재건설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적용은 개인 주거 건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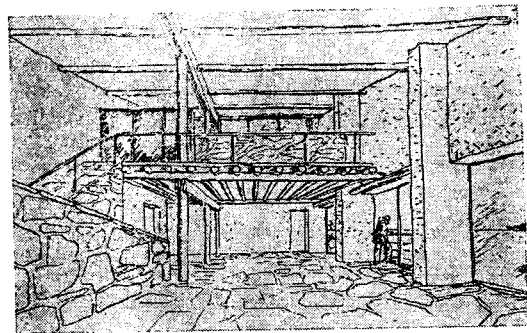
30년대 초, 르 꼬르뷔지에의 새로운 의도

는, '지역 조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의와는 구별 될 수가 없으며, 현대화에 있어 토속적인 미와 함께 진실된 문화를 나타낸다.

## 2. 에라쥬리 주택(Errazuriz, 1930)

칠리의 대서양 연안의 에라쥬리 주택(그림 3)은 주변 경관과 지역적 특성,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지형, 일조 조건, 장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이는 '그 장소'의 조건에 순응하는 현대화의 한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서쪽은 바다로, 북쪽은 자연 경관으로 향해 열려있고, 동쪽은 산으로 둘러져 막혀있다.

전통적인 건축법으로 모든 복잡한 구조는 제거시키고, 통나무로 기둥을 세워 보를 지지하고, 벽은 거친 돌로 이루어지며, 경사진 지붕은 기와로 덮여 있다. 외벽은 주위에서 주위는 돌로 1층면까지 채워져 있으며, 그 윗 부분은 돌 위에 석회로 마감하였다. 유일한 화려한 재료로는 창을 유리를 들 수 있다. 사용된 재료의 토속성은 현대 감각에 조화를 이루며 집 주변의 소박한 자연과 잘 어울린다. 현대적 구조에 지역의 토속적인 재료를 선정함은 건축가의 하나의 도전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화의 한 발견이 되고 이를 생태학적인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주의 개념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는 30년대 이념적인 논쟁을 야기시켰다.



(그림 3) 에라쥬리 주택(Errazuriz, 1930)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29-1934*, Zurich, Les Edition d'Architecture Artémis, 1965.

### 3. 빌라 만드로(La Villa Mandrot, 1930)

실시되지 않은 에라쥬리 주택과 함께 만드로 주택(그림. 4)은 르 꼬르뷔제에 작품의 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실행 작품이 되었다. 45cm 두께의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특유의 돌로 된 벽면은 돌 사이를 흙손으로 석회칠을 거칠게 함으로 실내외가 마감된다. 지역의 돌과 석조 공사의 거친 처리는 오래된 전통의 상징인 토속적인 건축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이런 구성에서 자연적인 재료는 경치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토속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르 꼬르뷔제에 의하면 "재료의 촘스러움은 명확한 평면과 현대 미학에 어떠한 구속도 받고 있지 않다."<sup>4)</sup>고 하였다. 이는 재료 처리의 독립성을 말해 준다.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 구조의 통합은 반대되는 미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림 4) 빌라 만드로(La Villa Mandrot, 1930)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29-1934*, Zurich, Les Edition d'Architecture Artémis, 1965.

빌라는 단순한 요소들과 형태로 되어있다. 이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닫혀진 건물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의 정원을 향해 열려진 형태를 취하며 실용적인 구성은 지역의 조건에 완전히 적응됨을 나타낸다. 토속적인 건축법으로 지역적인 요소들의 사용,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현대 건축 평면의 도입 등은

아카데미즘의 퇴색되고 무가치함에 반대한 르 꼬르뷔제의 새로운 취향을 나타낸 것으로, 장인적인 생산의 고풍스러움을 향한 현대 운동의 시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에로의 복귀는 30년대 혁신적인 면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국제적인 스타일을 고려하면서 반 도시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현대화와 고풍스러움의 통합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르 꼬르뷔제에 있어서 현대적인 개념과 그리스와 알제리의 토속적인 주거 건축 요소들의 종합을 찾을 수 있다.

## III. 현대 토속성의 건축

모니에(G. Monnier)는 "토속적인 건축"은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자발적인 확산을 하며 지역 문화에 새김을 하는 건축"<sup>5)</sup>을 의미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현대 토속적인 건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건축에 엄격한 경제성을 부여하며 실용적이며 형태적인 상징성을 주며, 기술적 근원을 가지는데, 이런 건축 방식들은 지역적 조건들에 부합된다. 이러한 개념들에 의하면, 마뜨(Mathes) 주택과 셀생 끌로드(La Celle-Saint-Cloud) 주택은 2개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1. 토속적인 건축의 발견

1931년 르 꼬르뷔제는 알제리의 프랑스 식민지 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축과 도시 계획이라는 전시회에 2개의 세미나를 발표하기 위하여 이 곳을 방문한다. 이외에 카스바(Casbah)라 불리는 인구 250,000 정도의 폐허가 된 도시를 방문하였다. 여기서 자발적이고 인간적인 건축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우리 시대 창조자에게 건축적 토속적인 미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현대 건축의 진보를 위한 동기가 되었다.

1931년과 1933년, 르 꼬르뷔제는 엠자브(M.zab) 지방을 방문한다. 그는 주택 평면을 효율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언급하였다. 아랍주택 건축은 “생활의 방식이다”라 하면서 건축과 생활 철학 사이의 긴밀한 결합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일치는 수세기 동안 변함이 없는 모든 토속적인 건축에 존재하고, 인간적인 건축은 자연의 조건에 잘 순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구체화하였다. 르 꼬르뷔제는 자주 알제리의 토속 건축을 참조하였는데, 이는 30년대 작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다가오는 시대를 위한 개혁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문화를 향한 르 꼬르뷔제 활동은 현대 건축의 문화적 정당성을 나타낸다. 이 문제는 제 4차 국제건축학회(Congrès Internationaux Architectes Modernes -CIAM)에서 제시되었다.

제 4회 CIAM은 마르세유에서 피레(Le Pirée)를 왕복하는 선상과 아테네(Athènes)에서, 1933년 7월 29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16국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기간에 르 꼬르뷔제와 대부분의 회원들은 에게해의 델로스(Délos), 미코노스(Mykonos), 산토닝(Santorin), 세리포스(Serifos) 등의 섬을 방문한다. 이 곳의 주택은 조형성, 순수한 색채 등으로 돋보였으며 회원들은 여기서 토속적인 건축미를 발견하였다. 섬들을 방문한 후, 그리스의 토속적인 건축과 국제적인 현대화 사이의 연결에 관심이 기울어졌으며 이는 건축 계획의 모티브가 될 것이다. 토속적인 건축은 이제부터는 르 꼬르뷔제에 있어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스 건축가 파노스 디레피(Panos djelepy)에 의하면, 에게해 주택은 그들 사용자들의 추위와 태양, 바람 등에 대항한 진정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장소에 적응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생산 조건에 연결되어 거주자의 손으로 지어졌다. 부피와 치수와 창은 항상 내부 평면에 의존하고, 과장되지 않으며 단순한 시공은 전통적인 기법에 따라 결정되었다. 구조에 있어 복잡함도 없고, 부자

연스런 형태도 부정확한 경향도 없다. 이는 자연의 조건을 고려하고, 현대 건축을 숨막히게 하는 장식을 제거하는 본능에 따라서 지어진 “진정한” 건축으로 볼 수 있다. 외부 벽은 장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창문이나 문, 단순한 물받이나 작은 지붕창으로 불규칙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며 어떠한 장식도 없이 그들 거주자들의 생활의 필요와 방법, 장소에 적용된 건축으로 여기에서 진정한 조형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현대 건축과는 거리가 있지만, 순수하고 원시적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려 이끌어졌다. 여기에서 건축가는 기후, 재료, 사회적인 구조에 적당한 대답을 주는 것을 배웠고,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불변의 것을 배웠다. 이러한 스타일도 없고, 건축가도 없는 건축은 현대 건축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르 꼬르뷔제 주거 공간에서 토속적인 요소를 창조하게 하였다. 비교적 제한적인 “자연”이란 단어에 비하여, 이 기간은 르 꼬르뷔제에게 새로운 언어를 찾게 하였고, 전쟁 전 프랑스에서 “실용주의(réalisme)”에 관한 새로운 논쟁을 열게 하였고, 이는 토속적인 건축을 참조한 작품들에 나타날 것이다.

## 2. 맛뜨 주택( La maison de Mathes,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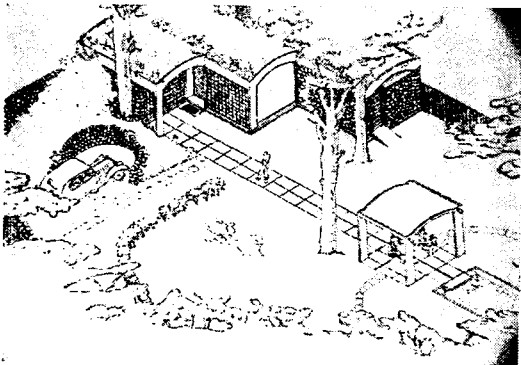
1935년 르 꼬르뷔제는 맛뜨(Mathes, 그림 5)와 셀 생 꼬로드(La Celle-Saint-Claud, 그림 6) 주택을 계획하였다. 맛뜨 주택은 프랑스 대서양 연안의 팔미레(Palmyre)에 바캉스 주택으로 지어졌다. 제한된 건축 비용으로 르 꼬르뷔제가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서신으로 건축 계획이 행해졌다. 건축가와 건축주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과 지역의 건축업자 노동자들이 시공하게 하였다. 이 주택은 재료의 사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려는 의도로 건설되었다. 건물 두 벽면은 길게 늘어져 있고 두 벽면은 박공으로 지붕의 두 면은 굴곡이 있는 시멘트 석면판으로 중앙으로 향하여 기울어진 것으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던 지붕과는 반대되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림 5) 맛뜨 주택(La maison de Mathes, 1935)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34-1938*, Zurich, Gisberger, 1935.



(그림 6) 셀 생 끌로드 주택(La Celle-Saint-Claud)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34-1938*, Zurich, Gisberger, 1965.

이런 형태의 지붕은 전체 볼륨의 매우 신선한 실루엣을 얻도록 하고, 건물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되고, 가장 강렬한 조형적인 표현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이는 외부로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지붕 바로 밑에

위치한 배수관, 태양 방지 설비 등을 용이하게 하였다. 빗물은 나무에 아연을 입힌 빗물받이에 받혀지고, 지붕 중앙의 가로 지름에 의해 배출되었다. 이런 구조는 돌로 된 벽면을 비로부터 보호하고, 각 끝에 위치한 낙수통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하였다. 거꾸로 된 지붕의 형태는 테라스 지붕을 탈피한 최초의 시도이고, 1928년 르 꼬르뷔제의 산업 전시회용 네슬러(Nestlé)주택 전시관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다. 철골 구조의 이 작은 건축물의 지붕은 함석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형태적인 발명은 에라주리(Errazuriz) 주택, 그리고 맛뜨(Mathes) 주택의 자연적인 재료의 사용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었다. 르 꼬르뷔제는 맛뜨(Mathes) 주택에서 전나무의 단순한 구조로 된 1937년의 자울(Jaoul) 주택에서 처럼 형태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 3. 셀 생 끌로드 주택(La Maison de La Celle-Saint-Claud, 1935)

주택은 1935년 파리 외곽지대인 셀 생 끌로드(La Celle-Saint-Claud)에 지어졌다.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낮은 아치의 단순한 형태가 주요 원리가 되었다. 자연석, 가공되지 않은 벽돌 등의 경제적이고, 인간미 있는 재료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토속적인 건축으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주택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대조되는 재료의 사용에서 오는 효과를 들 수가 있다. 유리 벽면과 자연석으로 된 벽면, 투명한 면, 반 투명면, 불 투명면, 그리고 산업적인 재료나 토속적인 재료로 되어있다. 대조되는 재료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표현적이고, 조형적인 방법으로서의 주택의 본질적인 현상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에라주리 주택이나 만드로 주택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토속적인 경향은 거대하게 덮여진 아치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이는 현대 토속적인 건축을 형성하며, 건축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었다. 르 꼬르뷔제의 1930년대

과거의 토속적인 건축을 향한 관심은 전쟁 후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풍스러움과 원시성을 강조하면서 페이리삭(Peyrissac, 1942)과 시떼 페르마낭뜨(Cité Permanente), 호크에 호브(Roq et Rob) 등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가장 오래되고 고귀한 전통을 이으면서 진정한 지중해 건축을 이루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일종의 지역 건축물로서, 지중해 연안의 경사지에 지어진 바캉스 주택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건축가는 농촌 건물 형태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얻었으며, 거주자의 생활 양식에 따르면 기온과 채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전통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공간적이고 건축적인 면에서 현대적인 방법과의 종합에 중점을 둔 지역 건축은 현대화 적용의 장이 되었고, 새로운 건축적 언어의 기초가 되었다.

#### IV. 르 꼬르뷔제의 후기 주거 건축

1947년부터, 프랑스 당국은 르 꼬르뷔제에게 공동주택을 계획하게 한다. 이에 건축가는 30년대 휴머니스트적인 토속 건축을 경험한 이후로 설계한 개혁적인 작은 주택들에서 보여준 개념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르 꼬르뷔제에게 과거와의 결별없이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건축적인 활동은 복잡하고 창의적인 주거 건축을 향하여 전개되었고, 여기에는 인도의 사라바이(Sarabhai)주택과 쇼댕(Shodan)주택, 파리 근교의 두 채의 자울(Jaoul)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콘크리트로 된 건축은 거칠고 투박스러우며, 토속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르 꼬르뷔제는 비록 다른 재료들과 함께 콘크리트를 사용했지만, 그는 콘크리트의 건축가가 되었다. 르 꼬르뷔제에 있어 콘크리트 시대는 산업 건설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 재료의 사용은 기술적, 미적 발전을

가져온다. 건축가는 기하학과 합리주의에의 도입에 반대하면서 형태와 재료에 있어 격렬한 효과를 찾고, 인간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시대로 향하려 하였다. 이는 마르세이유에서의 집합 주택이나 자울 주택에서처럼 50년대 그의 작품에서 표현된다.

##### 1. 마르세이유의 집합 주택(L'Unité d'habitation, 1946-1952)

마르세이유의 집합 주택은 르 꼬르뷔제가 25년 전부터 추구해온 주거에 관한 개념이 구체화 된 것이다. 주요 개혁은 주거 개념, 기술적 실현, 사회적, 도시 계획적 연구에만 국한 되지 않고 콘크리트의 색다른 취급 방법에도 있다. 이 건물에서 르 꼬르뷔제는 콘크리트를 "거친 콘크리트(béton brut)"라 불렀다. 전쟁 전, 콘크리트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미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재료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를 페인트로 거칠음을 숨겨 사용하였고, 합리적이거나 경제적인 한계 내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취급하였다. 그러나, 거푸집의 잘못 처리된 콘크리트의 "거친"상태는 르 꼬르뷔제에 의해 건축적 표면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이는 건축계에 새로운 미학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건축가는 이 새로운 재료를 발명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건축가들에게 현대건축에 토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마르세이유 집합주택에서 외부는 로지아를 제외하고는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콘크리트 색을 그대로 나타나게 한다. 콘크리트에 새겨진 나무로 된 거푸집의 자국은 정면, 필로티, 구조체 등 장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고, 이는 현장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며, 재료의 거칠음은 조형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조형성은 거친 콘크리트의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듈(Modulor)을 새긴 인체의 자국에까지 이른다. 르 꼬르뷔제는 30년대 토속적인 빌라에서 경험하였던 거친 재료에 집착하였고, 이는 집합 주택에까지 이르렀다.

색채에 관해서는, 르 꼬르뷔제는 로지아 내부 각 측면에 한 두개의 수직판에 강렬한 다색상을 사용하였다. 매우 단순하고 강하게 적용된 색조는 기본 색채로 구성되어 노랑, 붉은색, 밤색, 초록, 파랑으로 이루어진다. 색채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같지 않고, 흰색은 기둥, 대들보 등의 가벼운 구조, 천장, 측면의 판, 채광 조절면 등에 칠해졌다. 수직으로 채색된 표면은 연결된 콘크리트 표면과 거대한 이 건축물에 조화를 이루어 조형성을 나타내고 재료와 색채의 이런 조형성은 르 꼬르뷔제 후기 건축을 특징 짓는다.

건축된 집합 주택은 많은 시점에서 르 꼬르뷔제의 다른 이전 개념에 비하여 강한 특성을 가진다. 마르세이유의 집합 주택 후 낭뜨(Nantes, 1952) 집합 주택, 브레이(Briey, 1957) 집합 주택, 자울(Jaoul, 1952-1956) 주택, 피르미니(Firminy, 1962) 집합 주택 등 우리는 르 꼬르뷔제의 이들 최후 작품들을 통하여 현대 주거건축에서 토속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2. 자울주택(Jaoul, 1952-1956)

주택의 기본적인 원리는 천장에 벽들로 된 카탈란식 아치의 도입이고 이는 3.66m와 2.26m의 다른 폭으로 되어 있다. 내외부 벽위의 철근 콘크리트로 된 가로, 세로의 들보는 거푸집을 벗긴 거친 상태로 되어있고, 이는 나뭇판의 수평, 수직, 대각선의 자국을 그대로 들어낸다. 정면은 외부에 어떤 미장 마감도 하지 않은 자연 상태대로의 벽들로 되어 있고, 이는 시멘 물탈로 연결되고 메꿔진다. 주택 내부에서 두 아치 사이의 중앙벽과 외부의 벽들은 석회로 덮여졌고, 재료의 선택은 미나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거친 벽들과 석조 공사는 건축가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거칠게 행하여졌고 제한된 예산은 소박한 주택을 짓게하였다.

자울 주택은 "살기 위한 집"의 대량 생산과 기술적인 재생산의 시대에 이루어진 마르세이유 집합 주택에서처럼 20년대 흰 빌라들의

순결한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정결하지도 매끄럽지도 단조롭지도 않고 오히려 산업 사회의 추함과 치욕을 느끼게 하는 생산 세계에 대항한다. 이런 "빈곤한" 재료와 기술은 1930년의 에라쥬리(Errazuriz) 주택과 맛뜨(Mathes) 주택에서부터 표현되었다. 이들 주택들은 건축의 단순한 형태와 자연적인 재료를 포함하고, 시골 주택의 촌스러운 매력을 되찾으려 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동안, 빈곤한 재료들의 사용은 일반적인 궁핍에 대한 대답이었다.

비평가 모니에(Monnier)는 르 꼬르뷔제는 50년대에 재료의 선택과 사용, 기술, 기후, 식물, 생활 방법 등에 새로운 해석을 하였으며, 그 시대, 그 장소에서, 문화는 건물의 효과적인 생산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50년대 르 꼬르뷔제의 건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축", "현대적인 비참함", "중세인 생활의 순수한 외적인 거칠음"을 표현하였다. 거친 콘크리트란 새로운 재료의 도입으로, 거친 표면을 창조하고, 사람 손에 의해서 거칠음은 절정에 도달한다. 게다가, 아치처럼 표현적이고 건축적인 요소들을 재도입함으로써, 토속적이거나 자연적인 경향을 새긴다. 이는 자연적인 건축, 인간적인 건축으로 향하게 하고, 르 꼬르뷔제의 후기 작품들은 어떠한 형태들을 제공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르 꼬르뷔제의 후기 주거건축의 기원에 관한 의문은 30년대 르 꼬르뷔제 건축에 귀결된다. 1929년 경제공황의 여파로 30년대는 유럽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진실됨을 추구하던 건축가는 지역주의 건축과 제3 세계의 토속적인 건축으로 끌리게 되고, 이는 건축가에게 30년대의 검소한 주택을 설계하게 된 동기로 작용한다. 에라쥬리(Errazuriz) 주택에서 셀생 클로드(La Celle-Saint-Cloud) 주택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기술적이라기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 르 꼬르뷔제 있어 이 주택들은 현대 정신과 복고주의,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등의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접합된 것으로 장인적 생산물의 고풍스러움을 향한 현대 건축 운동의 기원이 될 것이다.

르 꼬르뷔제의 후기 주거건축의 특징을 '거칠음', '자연미', '인간미'라고 말한다면 이는 앞선시대의 경험에 의한 산물로 결론 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 이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용주의' 건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그 시대의 경제적인 실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작품에서 재료의 정선되지 못한 투박하고 거친 마감처리와 사용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건축가의 산업화된 건축의 보편성에 향한 대항, 실체에 대한 감각, 인간으로의 접근, 대량 생산에 대한 비평, 전통적인 건축에 근거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건축가는 건축에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고귀함을 돌려주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르 꼬르뷔제 건축 방법의 근본개념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르 꼬르뷔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축가들, 디자이너들의 사고의 전개과정을 조사하여 각자의 특성있는 주거건축이 나오기까지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미래를 위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R. Banham, *The new Brutalism*, London, 1966.
2. K. Frampton,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modern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 Paris, Philippe Sers, 1985, p. 195.
3. G. Monnier,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en France 1918-1950*, Paris, Philippe Sers, 1990, p. 319
4.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29-1934*, Zurich, Gisberger, 1935, p.48.
5. G. Monnier, *op. cit.*, p. 344.
6. G. Monnier, *op.cit.*, p. 137.
7. Banham Reyner, *The new Brutalism*, London, 1966.
8. Frampton Kenneth,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modern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 Paris, Philippe Sers, 1985.
9. Monnier Gérard,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en France 1918-1950*, Paris, Philippe Sers, 1990.
10. -, Le Corbusier, coll. Qui suis-je?, Lyon, La Manufacture, 1986.
11. Le Corbusier and Jeanneret Pierre, *OEuvre complète 1910-1929*, Zurich, Erlebach, 1935.
12.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29-1934*, Zurich, Gisberger, 1935.
13. -, *OEuvre complète 1934-1938*, Zurich, Gisberger, 1939.
14. -, *OEuvre complète 1946-1952*, Zurich, Gisberger, 1953.
15. Petit Jean, *Le Corbusier*, Lausanne, Rencontre, 1970.
16. Rudofsky Bernard, *Architecture sans architectes*, Paris, Chêne, 1980.
17. Sbriglio Jacques, *Le Corbusier, L'Unité d'habitation de Marseille*, Marseille, Parenthèses, 1992.
18. Stirling James, "From Garches to Jaoul, Le Corbusier as Domesric Architect in 1927 to 1953", *Architectural Review*, no 18, septembre 1958.
19. Vigato Jean-Claude, *Architecture régionaliste-France 1890-1950*, Paris, Norma Edition, 1994.